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사례 수퍼비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주영아 김영혜* 지승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사례 수퍼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일제 및 시간제 동반자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수거된 60개의 자료를 CQR-M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동반자 사례 수퍼비전 내용'과 '청소년동반자 수퍼비전에 대한 평가' 등 2개 영역으로 분류되었고, 두 개 영역에서 9개의 하위영역(사례개념화(위험요인, 보호요인), 개입목표, 개입전략 설정, 개입의 성과, 대안제시, 중간평가 형식, 수퍼바이저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청소년동반자 사례 수퍼비전에서 도움되는 점 및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과 26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각 하위영역별로 비율을 구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과를 정리한 후, 연구결과들의 함의와 시사점,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 청소년동반자, 수퍼비전, 위기청소년, CQR-M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영혜, 원광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074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437 원광디지털대학교, Tel: 070-7730-5485, E-mail: yh9848@wdu.ac.kr

2005년도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정책이 시작된 후 2006년부터 시/도,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CYS-Net(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 서비스는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탈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상정하고 조기에 이들을 발견, 개입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지역사회 지원체제이다(김동일, 윤현선, 서창원, 최수미, 2008). 이것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호서비스, 의료서비스, 공공서비스, 복지 및 상담서비스, 진로 및 취업서비스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 지원서비스 사업 중 하나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2005년 10월에 4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작되었으며 2015년 8월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보고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총 208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상담,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기관 연계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목표로 한다(박한샘, 고은영, 2009).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조 제 4항에서 정의한 위기청소년이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 위기청소년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현장에서 함께 찾고 연계하며 위기청소년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청소년동반자라고 정의하고 이들은 위기청소년의 정서적 지지자인 동시에 사례관리자(오경자, 이기학, 배주미, 2006)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기존의 전통적인 개인상담보다 지원해야 할 영역이 다양하다. 위기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 등 한 명의 위기청소년을 둘러싼 외부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개인중심적 상담에서 인간행동의 사회생태학적 모델(Bronfenbrenner, 1979)을 토대로 미국에서 개발된 다중체계치료(Multisystemic Therapy: MST, Henggeler, 1999)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가족과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제공, 치료모델의 준수, 치료변화에 대한 장기적 관리이며 특히 치료과정, 슈퍼비전 체계, 컨설팅 등에 대한 지침이 매우 실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Andrea, Nancy, Geoffrey, Stephen, 2012). Henggeler, Schoenwald, Rowland와 Cunningham(2002)은 다중체계치료의 주요 특징으로 개인맞춤형 종합적 개입, 치료 장애요인들의 적극적 제거, 치료효과 일반화를 위한 노력, 실증적 증거에 기반한 개입, 장기적 치료효과 유지를 위한 보호자 역할의 강조 및 성과에 대한 책임성 강조 등 프로그램 시행과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꼽았다. 이 다중체계접근의 치료적 개입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험과 원칙에 충실한 운영이 중요하다(Henggeler, Schoenwald, & Swenson, 200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이 다중체계치료(MST)의 한국적 적용(배주미 외, 2006)이기도 하다. 이러한 청

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다음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첫 번째 개입 특성은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개인 중심이 아닌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지역사회와 총체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다중체계적 관점이며, 둘째,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동기가 낮아서 상담 받는 것을 꺼리거나 지리적 여건 또는 환경적 상황으로 상담받기 어려운 위기청소년을 위해 전문가가 생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넷째, 개인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도록 중용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생활환경에서의 문제점을 직접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적 접근을 취하는 현장중심의 직접적 개입을 하며, 다섯째, 개입효과의 지속성 평가를 통한 개입전략의 정교화로 각 청소년의 특징에 맞는 맞춤형 개입전략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개입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개입전략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개입전략의 정교화를 주요 특징으로 갖는다(오경자 외, 2006). 또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개인 및 가족, 또래, 지역사회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평가하여 보호요인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설정을 강조한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오경자, 배주미, 양재원(2009)의 연구 및 홍나미(2012)의 연구에서 위기청소년의 전체 위기수준 및 심리내적 위기의 위험요인과 환경적 위기의 위험요인들이 모두 낮아졌고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위기청소년은 청소년동반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위험요인이 감소되고 보호요인이 강화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으로 보고하여, 청소년동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치료적 개입을 실시할 때 그 효과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Ogden, Hagen, & Adnersen, 2007). 또한 이 프로그램은 적절한 슈퍼비전의 제공과 상담자가 소속된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 치료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Curtis, Ronan, & Borduin, 2004; Schoenwald, Brown, & Henggeler, 2000)로 알려져 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치료적 개입이란 서비스 제공자인 청소년동반자의 근무환경이 안정적이어서 대상 청소년과의 상담과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를 보면 청소년동반자가 대상 청소년을 만나 서비스를 제공한 횟수가 많을수록 또한 청소년동반자의 경력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안녕감 증진이 크다는 보고가 있다(김송은, 2011).

그러나 실제 청소년동반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매우 회의적이다. 양재원, 배주미, 강석영, 박용두, 송미경(2010)은 청소년동반자의 상담 경력이 증가할수록 비협조적인 업무환경 측면에서 소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전일제 상담원이 시간제 상담원에 비해 더 많은 소진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전일제 상담원은 조직관리 및 행정업무가 추가적으로 주어진다. 위기청소년의 규모에 따라 청소년동반자 규모가 다르긴 하나, 전체적으

로 인력이 부족하여 지원 의뢰가 많을 경우 사례 배정에 시간이 걸리거나 청소년동반자들이 정해진 사례보다 많은 사례를 담당하게 된다(임상섭, 2012). 직무환경의 위험요소가 증가할수록 소진이 증가하며 특히 근무형태에 따라 전일제 동반자가 시간제 동반자에 비해 소진이 높게 나타나며(이현진, 2012), 상담자가 오래 근무할수록 프로그램 운영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잦은 이직으로 안정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었다(오경자, 2007).

청소년동반자의 이직률은 매년 30-40%로 나타났는데, 청소년동반자들이 퇴직하는 이유는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과 낮은 임금에 비해 과중한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임상섭, 2012). 이들은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며(박한샘, 고은영, 2009; 오경자, 2007), 시간제의 경우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급여체계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소진에 영향(이현진, 2012; 임상섭, 2012)을 주어 전일제에 비해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임상섭, 2012). 박서영(2015)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과 인적구성을 언급하였는데, 팀장을 포함하여 5-7명 정도의 인원으로 CYS-Net 구축 및 각종 회의 운영, 긴급구조, 위기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정해진 사례보다 많은 사례를 관리하고 이들의 퇴사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업무의 안정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았다. 즉 과다한 업무와 불안정한 근무형태가 청소년동반자의 안정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위기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청소년동반자의 자격요건은 석사이상 혹은 학사이후 6개월 이상의 관련 업무종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로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채용 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문가 교육이 있으나 특별한 업무 연수는 없으며 대부분 사례회의와 수퍼비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상담에 필요한 교육을 따로 이수하거나 업무진행을 통한 노하우를 통해 전문성을 쌓고 있다(임상섭, 2012). 이와 같이 청소년동반자들은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전문가이지만 앞서 살펴본 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동반자에게 의뢰되는 사례는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청소년동반자에게 요구되는 기간 내에 호전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한 압박감과 개입기간 및 동반자 역할의 한계 부분에서 갈등을 경험하며(박한샘, 고은영, 2009), 심리적 정서적 서비스를 비롯해 자원연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상담자 역할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혼합한 특성을 경험(박한샘, 공운정, 2011)하게 된다. 박승곤, 김수정, 문성호(2014)는 청소년동반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와 상담에 대한 딜레마, 안전에 대한 불안감, 불합리한 업무여건, 연계시스템 활용의 적극성 부족,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인식, 실적위주의 사

레운영 및 배정, 경직된 조직문화, 배려 없는 근무환경 등에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박한샘과 고은영(2009)은 청소년동반자 활동 경험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정체성 혼란이란 활동자체의 특성(다루기 힘든 사례, 위기상황 노출, 행정관리 업무병행),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인식부족, 고용형태와 같은 맥락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었다. 청소년동반자들에게 혼란감을 주는 부분은 슈퍼바이저의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사회복지전공 슈퍼바이저들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역자원 서비스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상담전공 슈퍼바이저들은 심리내적 문제나 행동부분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동반자들에게 균형 잡힌 슈퍼비전을 제공하지 못하고 청소년동반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동반자에게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상담자가 소속된 조직에서의 지원이 치료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주요 요소(Curtis et al., 2004; Schoenwald et al., 2000)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동반자들에게 사례 슈퍼비전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상섭(2012)은 청소년동반자들이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례회의와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문교육과 자문을 위해 대학교수 및 청소년전문가에게 슈퍼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사례회의는 1.5배 월례회의는 2.5배 증가한 것에 비해 슈퍼비전의 횟수는 약 3.5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영아(2010)는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능력개발기회는 보통 수준으로 직무관련 능력개발과 슈퍼비전 기회가 주어지긴 하나 만족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특히 근무환경에서 업무량에 대한 만족과 업무상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전문성 신장요인에서 능력개발을 위한 사례 슈퍼비전이나 교육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동반자들은 자비로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승곤 외(2014)는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슈퍼바이저가 부족하다는 청소년동반자들의 반응에 대해 청소년동반자 사업담당 팀장이 적극적으로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상담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공존하는 청소년동반자의 역할혼란성을 방지하기 위해 박한샘과 고은영(2009)은 청소년동반자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을 강화시키거나 공개사례회의 때 상담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동시에 슈퍼비전을 제공하여 다각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박서영(2015)도 청소년동반자들이 다양한 사례를 다루기 위해 부족한 사례회의와 슈퍼비전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보완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실습 등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청소년동반자들은 조직에서 지원해 준다는 인식을 가질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임성아, 2014). 이때 지원이란 조직이나 기관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 및 전문가로

서 성장할 수 있는 슈퍼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현진(2012)은 특히 프로그램 초기 상담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현실은 다양한 전공의 개인 상담자들이 짧은 교육을 받고 각자 사례를 진행해 가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수성에 맞는 역량을 갖춘 전문적 슈퍼바이저는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개입방법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사례 개입과정에서 적절한 지지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 양성과 현실적인 슈퍼비전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동반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에 맞는 현실적인 교육과 슈퍼비전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지적들은 다중체계치료를 토대로 개발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본래 다중체계치료가 강조하고 있는 바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중체계치료자는 상담 및 치료관련학과 전공자로 기본적인 다중체계치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치료자는 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3-4명이 팀으로 기능, 팀별 혹은 개인으로 매주 다중체계치료 슈퍼바이저에게 지도를 받으며 지도감독 시 일정한 형태의 평가를 통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찰하고 평가하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중요하게 다루도록(배주미 외, 2006)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매주 실시되는 지도감독과 분기마다(3개월에 1회) 실시되는 다중체계치료에 대한 보충교육(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다중체계치료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침에서도 슈퍼바이저는 어떠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동반자의 초기 교육과 사례회의, 보수교육과정에서 대상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기법 및 환경개입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들을 교육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히 청소년동반자 사례를 슈퍼비전하는 슈퍼바이저들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들, 즉 다중체계적 관점, 개인별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현장 중심의 직접적 개입이 필요하며 개입효과의 지속적 평가를 통한 개입 전략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외부 슈퍼바이저들에게 청소년동반자 사례 슈퍼비전 매뉴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가 부족하며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동반자 사례를 슈퍼비전을 해 주는 슈퍼바이저들이 알아야 할 청소년동반자 사례 슈퍼비전 매뉴얼에 대한 사전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동반자 사례 슈퍼비전 매뉴얼에 따라 외부 슈퍼비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센터도 없고, 청소년동반자 사례 슈퍼비전 내용 및 슈퍼바이저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들을 대상으로 현재 사례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동반자는 사례 수퍼비전에 참여한 수퍼바이저들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지각하는가, 둘째, 청소년동반자는 사례 수퍼비전 지침에 따른 수퍼비전 과정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셋째, 청소년동반자들이 지각한 수퍼비전에서 도움이 된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동반자 사례에 적합한 수퍼비전은 무엇이고 어떠한지 탐색하여 청소년동반자 사례 수퍼비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동반자 사례 수퍼비전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동반자 전체를 대상으로 양적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소수의 동반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탐색을 위해 질적 연구를 하되, 소수에 대한 깊이 있고 심층적인 면접을 통한 방법보다는 다소 피상적이더라도 좀 더 많은 대상에게 질문지를 통해 질적 자료를 얻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렇게 질문지에서 얻은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 연구방법은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CQR-M)이다. CQR-M은 발견지향적 접근과 탐색적 접근을 CQR(합의에 의한 질적연구법)의 요소와 통합한 것으로, 많은 표집에서 얻은 짧고 단순한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 CQR-M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탐색하고 발견하거나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현상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며, 양적 연구결과와 함께 사용하여 삼각화(triangulation)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Spangler, Liu, & Hill, 2012). CQR-M의 분석 절차는 자료 수집, 영역과 범주 목록 개발, 분석팀(judges) 선정 및 훈련, 코딩이다.

CQR이 대개 최소 8개에서 15개 정도의 자료를, 최소한 3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합의를 통해 영역별로 요약하고 범주화하는(영역 개발, 핵심개념 구성, 범주 구성, 교차분석, 감수) 과정을 거치는 반면, CQR-M은 설문지 같은 다수의 표집에서 얻은 짧고 단순한 자료를 연구자들이 검토하고 합의하여 영역과 범주를 도출하고, 훈련된 분석팀(judges)이 도출된 영역과 범주에 자료를 코딩하되 CQR과는 달리 자료를 요약하는 핵심개념 구성과 감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는다. 또한 결과 비교를 위해 CQR은 general, typical, variant, rare 등의 빈

도명을 사용하고 적어도 두 단계 차이가 있을 때 (예; general vs. variant, typical vs rare) 범주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며(Ladany, Thompson, & Hill, 2012), CQR-M은 각 범주의 반응 수를 해당 영역의 총 반응 수로 나눈 비율로 반응빈도를 표시하고, 차이를 논하는 기준은 범주 간에 30% 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로 상정한다(Spangler et al., 201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경기도, 경상북도, 수원시, 인천시, 경산시, 포항시, 구미시, 및 영주시 등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일제, 시간제 동반자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60명의 자료이다. 센터 선정은 청소년기관 근무자들의 추천을 받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Gall, Gall, & Borg, 2003) 방식을 활용하였다. 추천된 센터들 중 지속적으로 사례 수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의 설문 응답이 가능하다고 답해준 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동반자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60명 중 여성이 54명(90%), 남성이 6명(10%)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2명(36.7%), 30대가 20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명(13.3%), 20대 6명(10%)이었다. 근무형태는 전일제 15명(25%), 시간제 42명(70%)이고, 근무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16명(26.67%)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11명(18.3%), 2년 이상 3년 미만 10명(16.7%)이었다. 학력은 대부분이 석사였고(45명, 75%), 대학원 재학중 8명(13.3%), 박사 4명(6.67%)이었다. 소지한 자격증은 다양하였다. 상담심리사 2급 12명, 청소년상담사 3급 10명, 청소년상담사 2급 9명, 전문상담사 2급 8명, 사회복지사 1급 4명, 임상심리사 2급 3명, 청소년지도사 3명 등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29명(48.3%), 무교 14명(23.3%), 천주교 13명(21.7%), 불교 4명(6.7%)이었다.

분석팀

본 연구의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진 3명이 분석과정에 함께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CQR 및 CQR-M을 사용한 질적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자격을 취득한 전문상담사로 평균 15년 이상의 청소년상담 분야의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사례 수퍼비전 경력을 지니고 있다. 연구진은 CQR-M의 방법을 문헌을 통해 다시 한 번 숙지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 개인의 인적사항 문항들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전체 값이 60명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10개 문항이었다. 청소년동반자 슈퍼비전 과정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개발된 초기의 청소년동반자 슈퍼비전 지침서(지승희, 송미경, 배주미, 2006)와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 개정판(이대형, 노성덕, 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지도 체크 포인트' 질문 7개와 슈퍼바이저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청소년동반자 슈퍼비전에서 도움이 되는 점 및 보완할 점에 대한 질문 3개가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슈퍼바이저들이 YC 프로그램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② 슈퍼바이저는 YC 사례의 영역별 위험요인/보호요인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주었는가 ③ 청소년동반자가 설정한 개입목표에 대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주었는가 ④ 영역별 개입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도록 도와주었는가 ⑤ 목표달성에 적절한 개입전략 설정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⑥ 개입의 성과를 어떻게 다루어주었는가 ⑦ 개입목표 및 전략설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아보았는가 ⑧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개입방안을 다루어주었는가 ⑨ YC 사례 슈퍼비전에서 도움이 되는 점은 무엇인가 ⑩ YC 사례 슈퍼비전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이다. 자료는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질문지를 직접 받거나 이메일로 전달 받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분석절차

수집된 61개 질문지 중 불성실한 자료 1개를 제외한 60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기술이 풍부한 자료 4개를 연구자들이 각자 읽고 영역과 범주를 구성한 후, 3명이 모여 합의하여 1차적으로 슈퍼바이저의 YC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슈퍼비전 내용, 상담과정에 대한 평가, YC 슈퍼비전에 대한 평가 등 4개 영역과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 이를 기초로 각자 나머지 질문지들을 검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 영역이 지나치게 많은 하위영역으로 세분되는 점을 발견하고, 청소년동반자 슈퍼비전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슈퍼비전 내용과 슈퍼비전에 대한 평가로 크게 2개의 영역과 9개 하위영역을 도출하였다. 이후 2회 정도 더 합의과정을 거쳐 하위 영역들의 범주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개 영역과 9개 하위영역, 26개 범주를 도출한 후 하위영역별로 각 범주의 비율을 산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총 4회의 합의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영역별 개입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도록 도와주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개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영역별 개입전략을 세우는 것임)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 수립'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등의 수정 보완과정이 있었다.

결 과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동반자 수퍼비전에 대한 평가와 청소년동반자 사례 수퍼비전 내용 등 크게 2개 영역과 9개 하위영역을 도출하였다. 각 하위영역별로 비율을 구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청소년동반자 사례 수퍼비전 내용

청소년동반자 수퍼비전 내용에는 영역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파악, 개입목표, 개입전략 설정, 개입의 성과, 대안 제시와 중간평가 형식 등 6개 하위영역이 포함되었다. 응답자들은 수퍼바이저들이 청소년동반자 사례의 문제를 이해한 후, 영역별(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해 다루었다고 응답하였다(53개 반응 도출). 이 중 대부분은 수퍼바이저가 ‘영역별로 다루어 주었다(60.4%)’고 응답하였으나, 30.2%는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음’, 9.4%는 ‘한 가지 영역이나 한 가지 요인만 다루었다’고 응답하였다.

‘영역별로 다루어 줌’에는 구체적으로 ‘학교, 대인관계, 가정, 지역사회에 걸쳐 다양하게 다루어 주었음(7)’, ‘보호요인으로 장점을 발견하여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셨고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게 하여 내담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줌(20)’, ‘보호요인을 파악하고 강화시켜 위험요인을 점차 줄이는 방안으로 진행(49)’, ‘사례개념화를 통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하고 정리함(51)’, ‘내담자의 학교, 가정환경, 지역사회 특징 모두를 고려하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해 탐색하고 평가함(57)’,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됨, 내담자 강점인 보호요인을 적극적으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60)’ 등의 반응이 포함되었다.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음’에는 ‘특별히 다루지 않음(1)’, ‘위험요인 보호요인을 자세히 다뤄준 분들은 별로 없었음(4)’,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다루지 않음(25)’, ‘특별히 영역별로 나누거나, 위험-보호요인으로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다루진 않았음(56)’ 등의 반응이 포함되었고, ‘한 가지 영역이나 요인만 다룸’에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해주시나, 보호요인 및 대책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나 너무 포괄적으로 다룸(44)’, ‘영역별로 세분화된 피드백은 없었지만 전반적인 위험요인에 대해 다루어줌(55)’ 등의 반응이 포함되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문제를 파악한 후,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각 영역별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요인을 낮추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청소년 개인 및 그를 둘러싼 환경의 강점과 약점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용어는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동반자 사례를 생태학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개념

화하도록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은 그렇다고 보았지만, 30% 정도는 다루지 않았다고 지각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YC 프로그램의 슈퍼비전에서 다루어야 할 점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위영역인 ‘개입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도록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는 42개 반응이 도출되었고, 이 중 대부분이 ‘구체적,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줌(85.7%)’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은 14.3%였다. ‘그렇다’의 예로는 ‘각 영역별 개입목표를 세분화하여 확인가능한 지표로 알려주었음(7)’, ‘측정 가능하도록 도와줌(41)’ 등의 반응이 있었고 ‘잘 다루지 않음’에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58)’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하위영역인 ‘목표달성에 적절한 개입전략 설정’에 대해서는 45개 반응이 도출되었다. 이 중 86.7%가 ‘개입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응답하였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전략인가 점검 후 실효성 있는 전략방법을 지지해줌(2)’,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해야 한다고 하심(8)’,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인지를 먼저 따져본 뒤 개입전략을 점검함(11)’, ‘상담목표에 따라서 내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동반자가 개입하면서 힘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도, 각 개입방법에 따른 기술과 방법을 알려줌(49)’ 등의 반응이 포함되었다. 13.3%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였다’고 하였고, 이 하위영역에는 ‘센터 운영지침을 묻고 이에 맞는 전략을 제공해줌(37)’ 등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하위영역인 개입의 성과에 대해서는 50개의 반응이 도출되었다. 28%가 ‘상담자의 강점 지지’ 범주에 포함되었고, ‘상담자의 강점을 지지해줌(9)’, ‘성과에 대한 상담자 지지(15)’, ‘격려해주고 칭찬해 줌(23)’, ‘격려와 구체적인 조언(24)’,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 칭찬과 격려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성과가 나온 원인을 상담자가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줌(41)’ 등의 반응이 있었다. 다음 범주는 ‘내담자 변화 중심으로 목표 달성 정도를 봄(26%)’,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다루어줌(5)’, ‘내담자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의 유무에 따라(17)’, ‘내담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청소년동반자 입장에서는 관계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표현해보게 함(53)’, ‘내담자의 변화를 알 수 있게 상담초기와 종결 시기에 척도 질문을 통해 측정할 수 있게 해줌(60)’ 등의 반응이 포함되었다. 그 다음은 ‘미흡한 부분이나 강점 중 하나만 다룸(24%)’으로 강점 보다는 보완할 점에 대해 이야기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담의 성과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지해줌(2)’, ‘잘된 부분보다는 부족한 부분 위주로 이야기해주는 경우가 많음(4)’, ‘개입의 성과보다는 개선할 방향에 초점을 두었음(11)’, ‘발전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지지(30)’, ‘개입의 성과보다는 대안적 상담 방법에 대해 조언 주는 경우가 많음(37)’ 등의 반응이 있었다. ‘상담의 성과 확인 및 보완점 조언’ 범주(16%)에는 ‘수퍼바이지가 이뤄낸 성과를 지지해주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조언해줌(7)', '잘된 점과 보완점, 앞으로의 방향 제시(18)', '전체적으로 잘된 부분과 보완할 점에 대해 다루고 회기별 청소년동반자의 개입방법의 효과를 다룸(32)' 등의 반응이 있었고, 나머지 6%는 '잘 다루어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다섯 번째 하위영역은 '현재와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다루어주었는가'로 94.9%가 '제시해주었다'고 응답하였고 5.1%만이 다루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여섯 번째 하위영역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중간평가는 주로 주간 사례회의(83.3%)와 외부 슈퍼비전(16.7%)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 사례의 개입목표와 전략 설정, 개입 성과 및 대안 제시 영역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동반자들은 슈퍼바이저들이 측정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설정하도록 도와주고, 다르게 개입해볼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상담자의 강점이나 상담의 성과를 확인하고 보완점을 조언하거나 내담자의 변화 중심으로 목표달성 정도를 보는 것 등 일반 상담에서의 슈퍼비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 청소년동반자 슈퍼비전 내용

하위영역 및 범주	비율
사례개념화 (위험요인, 보호요인)	100%(53)
- 영역별로 위험/보호 요인을 다루어줌	60.4%
-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음	30.2%
- 한 가지 영역이나 한 가지 요인만 다룸	9.4%
개입목표	100%(42)
- 구체적,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줌	85.7%
- 잘 다루지 않음	14.3%
개입전략 설정	100%(45)
- 개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도와줌	86.7%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성 고려	13.3%
개입의 성과	100%(50)
- 상담자의 강점 지지	28%
- 내담자 변화 중심으로 목표 달성 정도를 봄	26%
- 미흡한 부분이나 강점 중 하나만 다룸	24%
- 상담의 성과 확인 및 보완점 조언	16%
- 잘 다루어주지 않음	6%
대안 제시	100%(59)
- 제시해줌	94.9%
- 다루지 않음	5.1%

하위영역 및 범주	비율
중간평가 형식	100%(42)
- 파트별/ 주간 사례회의	83.3%
- 전체/ 외부 수퍼비전 등	16.7%

청소년동반자 수퍼비전에 대한 평가

청소년동반자 수퍼비전에 대한 평가 영역은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하위영역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이해 정도’로 73개의 반응이 도출되었고, 이 중 57.5%가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 42.5%는 ‘이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 범주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에 근무하셨거나 동반자 수퍼비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4)’, ‘대부분의 수퍼바이저들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접해본 적이 있고 대체로 잘 파악하고 계셨음(31)’, ‘동반자 프로그램의 업무 구조 등 동반자 활동에 대한 제반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함(49)’ 등의 반응이 포함되었다.

‘이해가 부족하다’ 범주에는 ‘일반 청소년의 개인 사례로 이해하고 사례를 지도하는 경우가 있음(3)’, ‘찾아가는 상담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함(9)’, ‘실제 프로그램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다소 비현실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음(12)’, ‘수퍼비전 교수님들이 일반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청소년동반자 사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편이었음(34)’, ‘상담자가 지역지원 연계하는 것이나 외부 활동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음 (39)’, ‘이해를 못하는 경우 동반자 상담이 비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음(48)’, ‘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56)’ 등의 반응이 있었다. 수퍼바이저에 따라 청소년과 청소년의 환경(가족, 또래, 지역사회 등)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자원 연계 등의 환경 개입을 하는 찾아가는 상담자라는 청소년동반자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응답자의 40% 이상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수퍼바이저에게 사례지도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은 주목할 점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하위영역인 ‘청소년동반자 수퍼비전에서 도움이 된 점’은 75개 반응이 도출되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맞춘 개입 방향 및 목표 설정’이 4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례개념화, 청소년동반자 사례를 다각도로 보게 함(25.3%)’, ‘지지와 용기, 청소년동반자의 성장에 도움(14.7%)’, ‘내담자에 대한 이해(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맞춘 개입 방향 및 목표 설정’ 범주에는 ‘위기청소년 사례에 대한 개입방법을 보다 통합적으로 알 수 있었음(7)’, ‘청소년동반자의 특성에 맞춘 개입(12)’, ‘연계자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17)', '단기사례, 위기사례에 대한 목표설정(38)', '상담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 방법을 알 수 있음, 내담자 특성, 환경에 따른 다양한 전략방법을 찾을 수 있음(54)' 등의 반응이 포함되었다. '사례개념화, 청소년동반자 사례를 다각도로 보게 함' 범주에는 '사례를 보는 시각의 변화(1)', '사례개념화(2)', '사례를 보는 눈(45)' 등의 반응이 있었다.

'지지와 용기, 청소년동반자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범주에는 '상담자 지지를 통해 소진 예방(2)', '사례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음(42)', '사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례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장점, 슈퍼바이저의 온화하고 수용적인 태도에 위로와 용기를 얻음, 상담자의 한계와 한계 극복을 위한 도전 인식(44)' 등의 반응이 포함되었고, '내담자에 대한 이해' 범주에는 '상담자가 보지 못했던 내담자 이해(15)' 등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하위영역인 '수퍼비전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55개 반응이 도출되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퍼비전 필요'가 가장 많았고(50.9%), 다음은 '전문적인 외부 수퍼비전 및 횡수 증가(21.8%)', '없다(14.5%)' 그리고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동반자로서의 성장 지원 필요(12.7%)' 순이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퍼비전 필요' 범주에는 '청소년동반자의 특성을 아는 슈퍼바이저의 부재(2)',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동반자에 대해 이해가 풍부한 슈퍼바이저의 지도(3)', '청소년동반자들의 특성 이해, 실제적 상담에서의 도움(6)', '청소년상담을 직접 해본 분들이 수퍼비전을 하면 좋겠음(7)', '부모 상담에서의 효과적인 개입전략 보충(11)', '복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연계 관련), 단기상담이라는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31)', '현실적으로 내담자에게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퍼비전(41)', '사례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사례회의 기간 정하기, 중간평가 시스템 강화 필요함(54)' 등의 반응이 있었다.

'전문적인 외부 수퍼비전 및 횡수 증가' 범주에는 '개인적인 수퍼비전을 늘렸으면(14)', '다양한 상담 분야 슈퍼바이저의 수퍼비전(15)',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42)', '전문 슈퍼바이저의 수퍼비전이 좀 더 자주 있었으면(55)' 하는 반응이 포함되었고,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동반자로서의 성장 지원' 범주에는 '청소년동반자 위기 사례에 대한 지적과 충고도 중요하지만 사례에 대한 부담감도 수용되기 바람(13)', '청소년동반자의 발전을 위한 스터디 시간이 보완되었으면(51)', '사례유형별 기본 매뉴얼이 있어 참고할 수 있기 바람(52)' 등이 포함되었다.

도움이 된 점과 보완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징을 이해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와 전략을 세우도록 도와주며, 위기청소년의 단기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방법 제공, 자원 연계나 가족에 대한 접근 방법 등에 대해 수퍼비전 받았을 때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단기 개입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청

소년동반자 활동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었을 때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하였고, 위기사례의 부담감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소진 예방을 도와주는 것, 사례유형별 매뉴얼이나 스터디 시간 등 청소년동반자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보완해줄기를 바라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40%정도는 동반자 사례를 슈퍼비전하는 슈퍼바이저들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상담,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단기상담이라는 것, 청소년동반자 상담 현장의 어려움, 동반자의 압박감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슈퍼비전에서 도움이 되었던 점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방법, 청소년 상담의 특수성 이해, 연계자원에 대한 정보 등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맞춘 개입 방향 및 목표 설정에 도움을 받은 것이 가장 컸고, 같은 맥락에서 연계방법 조언, 단기상담의 실제적 방안에 대한 조언, 부모상담 전략, 비행청소년의 변화 위한 구체적인 슈퍼비전, 기관의 특성과 지원 자원에 근거한 슈퍼비전, 슈퍼바이저의 청소년동반자 사례/시스템에 대한 이해 우선 등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상담 슈퍼비전에서와 같이 특히 청소년동반자의 역할과 상담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여 지지, 격려하며 소진예방을 도와줄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청소년동반자 슈퍼비전에 대한 평가

하위영역 및 범주	비율
슈퍼바이저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100%(73)
-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	57.5%
- 이해가 부족하다	42.5%
청소년동반자 슈퍼비전에서 도움 되는 점	100%(75)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맞춘 개입 방향 및 목표 설정	46.7%
- 사례개념화, 청소년동반자 사례를 다각도로 보게 함	25.3%
- 지지와 용기, 청소년동반자의 성장에 도움	14.7%
- 내담자에 대한 이해	13.3%
청소년동반자 슈퍼비전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	100%(55)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슈퍼비전 필요	50.9%
- 전문적인 외부 슈퍼비전 및 회수 증가	21.8%
- 없다	14.5%
-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동반자로서의 성장 지원 필요	12.7%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슈퍼비전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에 자신이 경험한 슈퍼비전에 대해 자유기술하도록 하였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청소년동반자 슈퍼비전시 첫째, 슈퍼바이저의 청소년동반자 사례 이해에 대한 청소년동반자의 지각은 어떠한가, 둘째, 슈퍼바이저의 청소년동반자 슈퍼비전 과정 이해에 대한 청소년동반자의 지각은 어떠한가, 셋째, 자신이 받은 슈퍼비전에서 도움이 된 점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청소년동반자의 지각은 무엇인가 등이었다. 본 연구결과의 논의에서는 분석결과에 나타난 청소년동반자들이 지각한 슈퍼비전의 내용과 청소년동반자들이 평가한 사례 슈퍼비전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동반자 사례에 적합한 슈퍼비전 내용과 과정을 밝히고 청소년동반자 사례 슈퍼비전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결과들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슈퍼바이저의 청소년동반자 사례이해에 대해 청소년동반자들은 슈퍼바이저들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역별로 분류하여 사례를 분석하도록 도움은 주고 있으나 내담자와 내담자를 둘러싼 다중체계적 생태학적 환경의 위험요인을 낮추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균형적 시각을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동반자 사례 내담자들은 대부분 위기청소년으로 문제행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남상인, 2006), 상담자는 내담자의 행동문제에 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점을 청소년동반자 사례 슈퍼바이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둘째, 청소년동반자들은 사례의 개입목표 설정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들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달성가능한 목표 설정과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를 점검한 후 목표를 설정하도록 슈퍼비전을 해주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목표수립은 집중적(focused)이어야 하고, 행동지향적이고(action oriented), 구체적이어야 하는(specific) 특성(배주미 외, 2006)이 슈퍼비전 과정에서 잘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입목표 내용이나 적절한 개입전략 내용, 즉 다중체계의 개입목표를 수립하는 내용이나 혹은 슈퍼비전 사례에 제시된 내담자에게 최적의 개입전략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현재 청소년동반자 사례 슈퍼비전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청소년동반자들은 문제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사례개념화를 한 이후, 그에 따른 영역별 개입과 내담자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개입목표 설정과 개입전략을 실행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슈퍼비전이 없으며 따라서 사례개입의 전체 과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슈퍼바이저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배주미 외(2006)가 지적하였듯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일반 청소년의 상담개입에 비해 적극적인 가족 및 환경에 대한 개입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청소년동반자들은 10사례 이상을 관리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다중체계적, 맞춤형, 통합적인 개입을 하는 상담자체가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셋째, 개입성과 내용과 슈퍼비전 과정에 대해 청소년동반자들은 정기적인 내부 슈퍼비전을 통해 중간평가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그 대상자가 위기청소년임을 고려하여 단기간 개입하고 이에 대한 개입성과를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도록(박한샘·고은영, 2009)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중간평가 과정을 하는 이유는 비효율적인 개입전략을 수정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 사례 슈퍼비전 과정에서는 개입전략의 효용성이나 효과성을 분석하고, 현장중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전략 실행을 계획하는 사례밀착적인 슈퍼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슈퍼비전 과정에서 상담자의 강점을 지지하고, 내담자 변화 중심으로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며, 상담자의 상담능력에 대한 보완점을 조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 상담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들이 상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즉 상담계획, 상담 사례관리와 상담 개입목표, 개입기술(신종임, 천성문, 이영순, 2004)과 큰 차이가 없이 청소년동반자 사례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슈퍼비전에 대한 평가부분에서 본 연구의 응답자 중 40% 이상이 슈퍼바이저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Henggeler 외(2009)는 MST 프로그램에서는 슈퍼바이저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슈퍼바이저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MST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기술향상, 둘째, 개입서비스의 대상인 위기청소년 내담자와 환경에 대한 분석, 극대화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개입전략 분석 등을 통한 MST 치료자의 수행 전반에 대한 지원, 셋째, 의도되고 계획적인 슈퍼비전 실시 및 평가, 넷째, MST 치료자의 치료개입 기술향상과 전문적 능력 촉진, 다섯째, MST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내 기관에 프로그램 소개하기 등이다.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및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슈퍼바이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MST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그 원래의 의미와 기능을 유지하고 그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슈퍼비전 과정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청소년동

반자들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없는 슈퍼바이저 특히 외부 슈퍼바이저들에 의해 일반적인 상담의 슈퍼비전처럼 진행하게 될 때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지각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청소년동반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부족하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역량을 갖춘 슈퍼바이저가 많지 않은 것(박승곤 외, 2014; 이현진, 2012)에 기인한다. 청소년동반자 매뉴얼에 의하면 외부 슈퍼바이저의 자격요건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연구를 하였거나 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 혹은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 슈퍼바이저 교육을 수료한 전문가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 매뉴얼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슈퍼바이저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위기청소년의 특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해와 슈퍼바이저의 자질과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이다.

둘째, 내부 슈퍼비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사례관리자 및 슈퍼바이저들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부 슈퍼비전을 확대하는 것이다. 박승곤 외(2014)는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슈퍼바이저가 부족하다는 청소년동반자들의 반응에 대해 청소년동반자 사업담당 팀장이 적극적으로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근간이 된 다중체계치료(MST)에서는 다중체계치료팀을 지원하는 MST 전문 슈퍼바이저와 자문가를 배치하고 이들을 통해 치료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Henggeler, 1999).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동반자로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사업 담당자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실시할 때 슈퍼비전 만족도가 더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다중체계적 개입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우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MST의 가족기반 접근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황순길, 손재환, 전연진, 양민정(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가 관리하는 청소년 내담자들의 경우 2개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유형을 가진 고위험 계층 청소년이 1개 미만의 문제유형을 가진 저위험 계층 청소년에 비해 내적 방해 요인과 가족방해 요인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동반자의 75%는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부모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부모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각하고 있지만 가족의 무관심, 갈등, 불화 등의 요인들 때문에 가정이나 부모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부모 및 가족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다중체계적 개입의 현장 적용의 어려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은 청소년동반자 사업주체와 지역사회내 서비스 관련기관 및 민간 영역간 연계부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청소년 연계기관간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과 업무 협약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명목상의 업무협약에 그칠 때가 많다는 임상섭(2012)의 연구결과나 CYS-Net 운영에서 청소년상담지원기관들이 다른 기관들과 서비스를 주고받고 있으나 조직들간 공동이슈대응이 낮고 대체로 다른 기관의 행사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조직간 교류부족이 조직간 협력의 장애가 되었다고 본 이채식(2007)의 연구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이상으로 청소년동반자 슈퍼비전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보완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질문지에 기술한 내용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질문 의도를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여 응답했는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3명의 연구자들이 응답자의 반응을 최대한 그대로 담아내려 노력하였으며 애매모호한 반응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두 번째는 슈퍼비전 과정과 내용에만 초점을 두어 결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슈퍼비전 실시 과정을 어렵게 하는 현장의 여건이나 청소년동반자들의 근무환경 등과 같은 요인들이 슈퍼바이저 선정이나 슈퍼비전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 다소 지엽적인 결과를 도출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들을 대상으로 슈퍼비전 매뉴얼 지침대로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기초 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MST의 주요 원리를 적용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시행 10년이 되는 현재 청소년동반자 슈퍼바이저들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지각을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슈퍼비전의 보완점에 대한 몇 가지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 김동일, 윤현선, 서창원, 최수미 (2008).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평가 연구. 상담학연구, 9(4), 1769-1783.
- 김송은 (201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청소년의 안녕감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상인 (2006).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의미와 개선방안, 청소년행동연구, 11, 1-30.
- 박서영 (2015). 위기청소년 상담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곤, 김수정, 문성호 (2014). 청소년동반자의 역할수행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21(7), 119-144.
- 박한샘, 고은영 (2009). 청소년동반자 활동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0(4), 1971-1994.

- 박한샘, 공윤정 (2011). 청소년동반자의 윤리적 갈등경험과 대처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2(3), 771-791.
- 배주미, 오경자, 이기학, 이상선, 양현정, 지승희, 송미경, 신호정 (2006). 다중체계치료 (Multisystemic Therapy)의 한국적 적용: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인지행동치료*, 6(1), 1-22.
- 신종임, 천성문, 이영순 (2004). 상담경력 수준에 따른 개인상담 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실제 및 만족도 분석.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7(1), 83-101.
- 양재원, 배주미, 강석영, 박용두, 송미경 (201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성격과 조직 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8(1), 73-92.
- 오경자 (200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오경자, 배주미, 양재원 (2009).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중체계치료적 접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성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7(1), 1-17.
- 오경자, 이기학, 배주미 (2006).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개정판)*.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대형, 노성덕 (2011).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개정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채식 (2007). 청소년동반자 역할과 CYS-Net 향후과제. *청소년행동연구*, 12, 1-11.
- 이현진 (2012). *청소년동반자의 직무환경 위험요소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상섭 (2012).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성아 (2014). *청소년동반자의 직무요구,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조직지원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아 (2010). *청소년동반자의 요인별 직무만족이 전반적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승희, 송미경, 배주미 (2006). *청소년동반자 수퍼비전*. 한국청소년상담원.
- 홍나미 (2012).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글로벌사회복지연구, 2(2), 7-30.
- 황순길, 손재환, 전연진, 양민정 (2015).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동반자 내담자의 문제계층별 상담요구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3(1), 273-294.
- Andrea, T., Nancy, P., Geoffrey, B. & Stephen, B. (2012). Multisystemic therapy for young offenders: families' experiences of therapeutic processes and outcom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2), 187-197.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urtis, N. M., Ronan, K. R., & Borduin, C. M. (2004). Multisystemic treatment: A meta-analysis of outcome stud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 411-419.
- Gall, M. D., Gall, J. P., & Brog, W. R. (2003). *Educational research: An introduction (7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Henggeler, S. W.(1999). Multisystemic therapy: An overview of clinical procedures, outcomes, and policy implications.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Review, 4*, 2-10.
- Henggeler, S. W., Schoenwald, S. K., Borduin, C. M., Rowland, M. D., Cunningham, P. B. (2009). *Multisystemic therapy for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2nd eth.)*. NY: Guilford Press.
- Henggeler, S. W., Schoenwald, S. K., & Swenson, C. C. (2006). Letter to the editor: Methodological critique and meta-analysis as trojan hors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 447-457.
- Henggeler, S. W., Schoenwald, S. K., Rowland, M. D., & Cunningham P. B. (2002).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Multisystemic therapy*. New York, NY: Guildford Press.
- Ladany, L., Thompson, B. J., & Hill, C. E.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r simple qualitative data: An introduction to CQR-M. In C. E. Hill (Ed),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pp. 117-134).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gden, T., Hagen, K. A., & Andersen, O. (2007). Sustain ability of the effectiveness of a programme of multisystemic treatment (MST) across participant groups in the second year of operation. *Journal of Children's services, 2*, 4-14.
- Schoenwald, S. K., Brown, T. L., & Henggeler, S. W. (2000). Inside multisystemic therapy: Therapist, supervisory, and program practice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8*, 113-127.
- Spangler, P. T., Liu, J., & Hill, C. E.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r simple qualitative data: An introduction to CQR-M. In C. E. Hill (Ed),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pp. 269-283).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 Exploratory Study on the Youth Companion's Perception for Case Supervision

Ju, Young-A

Kim, Young-Hye

Jee, Seung-Hee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Wonkwang Digital University

Cyber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ase supervision is conducted for youth companions who are engaged in regional adolescent counseling centers. We polled youth companions working full-time and part-time at regional adolescent counseling centers and collected 60 responses, which was analyzed with CQR-M. The polled data was classified into two domains of 'content' and 'evaluation' of supervision activities for youth companion's case. Nine subdomains were deducted: case conceptualization (risk factor, protective factor), intervention goal, establishing intervention strategy, intervention outcome, suggestion of alternatives, format of evaluation in the mid-course, supervisor's understanding of youth companion program, suggestions for youth companion case supervision, and deducted 26 categories. The proportion of each category was calculated and we listed them in order of importanc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youth companion, supervision activities, CQR-M